



韓·日·中
통상 불확실성에
몽쳤다
02



Economy

코스피	2557.98 (-49.17)	코스닥	693.76 (-13.73)
금리 (미국 3년)	2.629 (+0.007)	환율 (원·달러)	1469.90 (+4.60) (28일)

韓·美·中 누비는 총수들... 글로벌 현장서 답 찾는다

이재용, 10년만에 시진핑 면담
中 반도체 협력 강화 견결음

정의선, 트럼프 만나 투자 약속
현지 100만대 생산체제 대전환

최태원, 상법 개정에 작심 발언
“초불확실성 시대, 자율 필요”

국내 재계 총수들이 글로벌 위기 대응을 위해 촌각을 다투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미국, 중국 등 주요국 변수에 대처하는 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28일 글로벌 최고경영자(CEO)들과 함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면담을 끝으로 약 1주일 간의 중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 회장과 시진핑 주석의 만남은 지난 2015년 3월 중국 보아오포럼 이후 10년여 만이다. 이 회장은 이번 중국 출장을 통해 현지 전자 및 전기차 기업들과의 사업 협력을 모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가 중국 시장에 공을 들이는 것은 현지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삼성전자가 공시한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매출은 64조9275억원으로 전년(42조2007억원)보다 53.9%(약 22조7000억원) 증가

했다. 사업보고서에서 모바일, 가전을 담당하는 DX(디바이스경험) 부문과 반도체 사업을 맡고 있는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의 지역별 매출이 따로 구분되어 있진 않지만, 중국 수출 제품의 대부분은 반도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판매·생산법인의 실적도 개선됐다.

중국 시안에서 운영 중인 낸드 플래시 생산법인 ‘삼성 차이나 반도체(SCS)’(시안공장)의 지난해 매출은 11조 1802억원, 영업이익은 1조1954억원을 기록했다. 업황 둔화가 이어졌던 2023년 실적(매출 8조6938억원·영업이익 8780억원)과 비교하면 크게 개선됐다.

업계 관계자는 “이 회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도 최대 매출 지역인 중국을 방문한 것만 보더라도 현지 시장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번 출장으로 중국 현지의 첨단 신사업 투자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 회장은 방중 첫날 샤오미 전기차 공장을 방문해 레이쥔 회장과 전격 회동을 가졌으며, BYD 본사를 찾는 등 중국 사업과 관련한 광폭 행보를 보였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최대규모의 통큰 투자를 단행하며 미국 시장에 집중하고 있다. 정 회장은 지난 24일(현지 시간)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남을 갖고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또 26일에는 미국 조지아주 엘라벨에 위치한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준공식에 참석했다. 정 회장은 준공식 현장에서 “이곳은 전세계 공장 중 중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부친인 정몽구 명예회장이 2005년 미국 엘라벨 공장 완공 후 20년 만에 HMGMA를 추가 설립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산불 진화중인 육군 장병들

지난 29일 경북 지역 산불진화 지원작전 중인 육군 50사단 장병이 대열을 갖춰 산불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 /뉴시스

정 회장은 준공식 현장에서 “이곳은 전세계 공장 중 중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부친인 정몽구 명예회장이 2005년 미국 엘라벨 공장을 완공한 후 20년 만에 HMGMA를 추가 설립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정 회장이 미국 시장에 공을 들이는 것은 현지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함이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 91만 1805대, 기아 79만 6488대를 판매하며 양사 모두 사상 최대 판매를 달성했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0%대 성장’ 경고에 산불까지 최상목 “10조 필수 추경 추진”

글로벌 IB, 韓성장률 전망 줄하향
경기침체 우려 속 재정 역할 주목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대외 경제 여건 악화와 내수 부진 등의 이유로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며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경상권 산불 피해 등 민생 회복과 AI(인공지능) 등 첨단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편성을 공식화했다.

국제금융센터(KCIF)에 따르면 영국의 글로벌 IB 캐피탈이코노믹스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0.9%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의 지난달 전망치 1.5% 대비 0.6%포인트 낮게 전망했다. HSB C도 한국의 성장률을 1.4%로 내다봤다. 신용평가사 S&P도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1.2%로 하향했다. 이는 아시아 국가 중 가장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된 것으로, 일각에서 제기한 0%대 전망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IB와 신용평가사들은 비상계엄 선포와 장기화된 탄핵 정국으로 인해 소비 심리가 얼어붙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 등이 대한민국의 수출의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출과 내수가 동반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해 재정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분출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자체 보고서에서 경기 침체에 대응하고 2.0%의 경제성

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선 18조원 가량의 추경안 편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정치권은 야권을 중심으로 작년부터 추경 편성을 요구해왔으나, 민주당이 전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쿠폰’ 사업 편성을 요구하는 등 여당과 이견이 커져 논의가 미뤄졌다. 하지만, 경상권에 역대급 피해를 남긴 산불이 나면서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한 추경안 편성 논의가 신속히 진행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 추경 논의에 불이 붙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날 추경예산안 추진을 공식화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 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안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대형 산불 피해 복구와 미국의 통상 리스크와 내수 부진 등에 대응하는 데 집중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의 주요 분야로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을 꼽았다.

최부총리는 “산불로 약 4만8000헥타르에 달하는 산림 피해와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구를 위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태홍 기자 pth7285@

m-커버스토리

탄핵심판 능력에 ‘코리아 리스크’ 확대

환율·증시·신용 ‘빨간불’

외국인 8조 넘게 주식 ‘팔자’
코스피 2600선 아래로 후퇴
환율·CDS 프리미엄 동반 ↑

국정 불안으로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는 휘청(원·달러 환율은 상승)하는 상황이 연일 반복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진 탓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과 경제분석기관들은 정치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한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고 잇따라 경고한다. <관련기사 3면>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3계엄’ 사태 직후인 4일부터 이달 28일까지 외국인인 한국 주식 8조 2052억원의 원 어치를 팔아치웠다. 지난 17일 2600선대로 올라섰던 코스피는 28일 2557.98로 밀려났다. 현재의 탄핵 심판이 예상보다 미뤄지자 불안한 투자자들이 발을 뺐다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 26일 두 자릿수(10.19%)를 찍었던 올해 코스피 상승률은 6.61%로 떨어졌다. 미국 S&P500지수(-5.11%), 일본 닛케이지수(-6.95%)보다는 앞서지만, 시장에서는 지난해 수익률 부진(-9.63%)에 따른 기저효과와 증시 구원투수로나선 기관의 매수세 덕분이란 평가가 많다.

지난 28일 원·달러 환율은 1469.90

을 기록했다. 올해 원화 가치는 0.16% 올랐다.

하지만, 원화 가치 상승폭은 유로, 파운드, 위안 등 보다 낮다. 수출, 내수 등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에 대한 국내외의 의구심이 커진 가운데 정치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해 달러 자금이 한국을 탈출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경제위기 때엔 원화 가치 하락이 한국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경기 회복의 발판이 됐다. 하지만 대기업의 해외 현지 생산과 원자재·부품 해외 의존이 늘어난 지금은 기업의 수익성 악화, 수입물가 상승, 소비 위축 등 ‘나쁜 원저(低)’ 현상이 훨씬 심각하다. <3면에 계속>

/원관희 기자 wkh@

메트로 한줄뉴스



▲ 이재명 “헌법재판소 불신 커져...尹 탄핵 신속히 결정해야” /사진 뉴시스
▲ 野, 한덕수 향해 “4월 1일까지 마은혁 임명 안 하면 중대 결심” 압박

▲ 김문수, “野 국무위원 일괄탄핵 협박 제정신 아냐... 적극 맞설 것”
▲ 안철수 “내각총탄핵은 국회 향한 폭탄 테러... 민주당 의원들, 사퇴하라”

▲ 與 “野 4.8조 예비비 주장 엉터리... 즉각 투입 가능 예산은 8분의 1 수준”
▲ 이낙연 “사법리스크 끝났다는 건 이재명 대표 나 민주당의 이미지 조작”